

## 에코스

# 그린뉴딜 발맞춰 태양광 분야서 사업 확대

## 제조뿐 아니라 태양광 분야서 시공·연구·컨설팅 등 다양한 형태 사업 추진 건물일체형태양광 분야까지 사업영역 확대

올해 산업계 화두인 한국판 뉴딜, 그 한 축을 담당하는 그린뉴딜로 인해 에너지 업계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특히 그린뉴딜로 인해 재생에너지 보급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태양광·풍력 업계의 행보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2012년 설립된 에코스(대표 배운호·사진) 역시 이처럼 그린뉴딜 분야에서 눈에 띄는 기업 중 하나다.

reporter | 윤대원 ydw@electimes.com



설립된지 10년이 채 안된 짧은 역사를 지닌 기업이지만 국내 태양광 분야에서 다양한 기술개발과 적극적인 사업 확대를 통해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에코스는 태양광 인버터뿐 아니라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용 전력

측정장치, 에너지저장장치(ESS) 주요부품인 전력변환장치(PCS) 등 다양한 제품군을 갖추며 그린뉴딜 시대에 발맞추고 있다.

기존 PCS 분야에서 꾸준한 기술개발로 경쟁력을 확보해 온 에코스는 태양광 시장 활성화에 발맞춰 기존의 기술을 융합한 태양광 인버터를 출시하며 태양광 시장에도 발을 내딛었다.

광범위한 태양광 시장에서 기존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포지셔닝에 성공한 에코스는 이를 기반으로 태양광 시스템까지 시장에서의 업역을 확대해 갔다.

태양광 모듈-인버터-접속함에 이어 수배전반까지 태양광 설비와 관련한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계획이라는 게 에코스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최근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분야까지 발을 넓혔다.

BIPV 사업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고 경기도 화성시 일원에 BIPV 생산라인까지 구축한 에코스는 최근 경기도 내 학교 일부에 BIPV 설치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준비해 온 BIPV 사업을 통해 올해 모듈 초도생산이 시작됐으며, 본격적인 성과도 나오고 있는 셈이다.

에코스는 또 서울에너지공사가 수행하는 태양광 신기술 실증사업에도 참가, 컬러모듈 BIPV 제품을 서울시가 조성하는 실증단지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유리 전문 기업인 디에에프 등과 협약을 체결해 고품질 BIPV 공급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차별성을 갖춘 프리미엄 모듈을 통해 시장에 안착하겠



에코스는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반자동식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생산을 본격화하고 있다.

다는 것.

에코스는 또 최근 뛰어난 가격경쟁력을 통해 국내 시장에 깊게 침투한 중국산 인버터 제품에 대항하기 위해 초저가용 100kW 태양광 인버터를 개발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기술력에 가격경쟁력까지 갖춘 제품으로 국내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에코스는 또 전력사업부를 출범하며 수배전반 사업까지 수행한다. 차별화된 먼진기능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기술을 통해 지진과 먼진, 화재 등을 감시하는 프리미엄 제품을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성능인증까지 받으며 사업화를 코 앞에 두고 있다.

에코스가 이처럼 다방면에서 우수한 제품을 내놓을 수 있는 배경은 연구개발에 대한 높은 투자가 선행됐기 때문이다. 총 직원 30명 중 절반가량이 연구인력으로 이뤄져 최근 우수기업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선정한 '2020년 우수기업연구소'에도 이름

을 올렸다. 이에 덧붙여 다양한 특허와 인증을 통해 제품에 대한 신뢰성까지 높이고 있다는 게 에코스 측의 설명이다.

에코스는 지난해부터 준비한 BIPV 모듈과 전력사업 등의 체계를 갖추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 게 올해 목표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에까지 공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예정이다.

특히 각 제품별로 연계된 시스템을 구축해 태양광을 구축하려는 사업자가 에코스 제품을 믿고 연계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배윤호 에코스 대표는 “전력변환기술을 기반으로 지금까지 사업을 확장시켜 왔다”며 “우리 회사의 차별점은 연구개발이다. 최근 중국제품의 가격경쟁력에 밀려서 사업을 접는 중소기업들이 적지 않지만 에코스는 차별성있는 제품을 통해 시장에서 싸워가고 있다”고 말했다. **e**